

돌고 돌아 결전지로...러시아는 직행한다

슈틸리케호 '아랍권 카타르 단교'에 도하 직항 못해
10일 쿠웨이트 통해 카타르 입성 "일정 차질 없어"

14일 러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FIFA WORLD CUP
RUSSIA 2018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랍권의 카타르 단교 영향에 따라 쿠웨이트를 경유해 결전지에 입성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권 7개국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카타르를 오가는 항공편이 막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팀 한 관계자는 6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단교 영향으로 도하로 가는 직항편이 묶여 10일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이에 10일 오후 1시 10분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해 쿠웨이트로 이동한 뒤 환승을 거쳐 오후 5시 25분 도하에 도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는 오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인 대표팀은 이를 위해 10일 오후 두바이에서 3시 30분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 도하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교 영향으로 카타르 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국가를 경유한 대체 항공편을 모색해 왔다. 당초 오만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수단을 포함해 40여 명이 이동하는 탓에 좌석이 없어 쿠웨이트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에서 도하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쿠웨이트를 경유하면 4시간가량 걸리게 된다. 도하 현지 도착 시간도 1시간 40분가량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표팀은 일정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도 "이동하는 데 다소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대표팀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친정' 함부르크 황희찬에 관심

지역 매체 "이적료 100억"

한국 축구대표팀의 막내 황희찬(21·잘츠부르크)이 손흥민(25·토트넘)의 '친정팀'인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함부르크 지역지인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7일(한국시간) "한국 공격수(황희찬)가 엔스 토트 함부르크 단장의 영입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아벤트블라트는 황희찬에 대해 스피드와 결정력이 매우 좋다고 설명하며, 영입의 관건은 이적료가 될 거라고 전했다.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이적료를 800만 유로(약 100억원)로 추산했다. 최근 독일 스포츠포츠에서도 함부르크가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함부르크는 손흥민이 고교 재학 중인



2008년 유학 간 것을 계기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성장한 팀이다. 2009년 11월 함부르크에 정식 입단한 손흥민은 2010-2011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2012-2013시즌 12골을 넣는 등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함부르크는 2016-2017시즌 강등권에 가까운 14위에 머물러 공격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희찬은 올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팀 내 최다인 12골을 터뜨려 리그 득점 순위에서 3위에 올라 잘츠부르크의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엔 국가대표팀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 전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카이마에서 훈련중인 축구국가대표팀의 이창용, 한국영을 비롯한 선수들이 6일 오후(현지시간) 에미리츠 클럽 경기장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유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7일(현지시간)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GOOD Guys"

PGA '좋은 사람' 30인
최경주, 亞선수 유일 포함

'탱크' 최경주(47)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가운데 대표적인 '좋은 사람(Good Guys)' 30명에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 다이제스트는 7일 PGA 투어 선수와 캐디, 언론 및 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50세 이하 선수 가운데 좋은 사람을 평가해달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이 설문 조사는 여러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며 "팬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정도, 투어 내외 비교적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지 여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행동이 올바른지 등이 주요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선수별 점수나 등급은 따로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조던 스피스(미국)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애덤 스콧(호주)과 토니 피나우(미국)가 공동 2위에 올랐고 스투어트 싱크(미국)가 4위였다. 10위까지 순위를 보면 5위 리키 파울러(미국)를 시작으로 빌리 할리 3세(미국), 제프 오길비(호주), 브랜트 스토크(미국), 제스틴 로즈(잉글랜드), 앤드루 존스턴(잉글랜드) 순이었다. 남자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맷 쿠치(미국)와 함께 공동 12위, 랭킹 3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17위에 각각 자리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고 최경주는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공동 29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당시 1위는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였고 최경주는 공동 13위였다. 당시 조사에서도 상위 30위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최경주뿐이었다. /연합뉴스

충북 국가대표 선수촌 새 이름 지어주세요

체육회, 20일까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9월 충북 진천에서 문을 여는 국가대표 선수촌의 새로운 명칭을 20일까지 공모한다. 9월 완공 예정인 충북 진천군 소재 선수촌은 면적이 159만 4천870㎡에 이르고 35개 종목, 1천150여 명의 훈련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체육회는 "그동안 선수촌은 소재지 지역명을 사용해 이름을 붙였지만,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과학 훈련시설을 갖춘 선수촌이 새로 문을 여는 만큼 명칭을 공모해 국민과 소통하는 선수촌을 만들고 새 선수촌 등장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명칭 공모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수촌 기능을 잘 나타내는 친근하고 참신한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작은 총 8편을 선정하며 1등에게 대한체육회장 명의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sports-naming.or.kr)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

4조1300억원

맨유 '세계서 가장 가치있는 축구팀'

美 경제지 포브스 발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 1위에 올랐다. 포브스가 7일(한국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유는 구단 가치 36억9천만 달러(약 4조1천300억원)를 기록해 전 세계 축구클럽 중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맨유가 2015-2016시즌에 구단 수익 7억6천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보였다"라며 "구단 수익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두 명문 구단,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앞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맨유는 광고와 스폰서수익만으로 4억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전 세계 구단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브스는 "맨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프리미어리그의 인기도와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마케팅, 브랜드 관리가 한몫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가 뛰는 FC바르셀로나는 36억4천만 달러의 가치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바르셀로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키와 공식스폰서 계약했는데, 매년 1억6천800만 달러를 받는다"라며 "이는 과거 맨유가 아디다스와 계약한 연간 1억1천100만 달러의 계약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년 연속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프리메라리가·35억8천만 달러)는 3위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가치는 지난 시즌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27억1천만 달러), 5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20억9천만 달러)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아스널, 첼시, 리버풀(이상 프리미어리그), 유벤투스(세리에 A), 토트넘(프리메라리그)이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했다. 프리미어리그는 10위권 내에 6개 팀을 올려 전 세계 최고 축구 시장임을 입증했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 세계선수권 대비 실전 훈련

29일 체코 골든스파크 대회 100m 출전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6월 29일(이하 한국시간) 체코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AP통신은 7일 "볼트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골든스파크 대회 남자 100m 경기에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볼트는 "골든스파크는 내가 성인 무대에 뛰어든 뒤 처음으로 초청받은 대회"라며 "마지막 시즌에 골든스파크에 나선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볼트는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은퇴 무대로 예고했다. 골든스파크 대회는 런던 세계선수권을 대비한 실전 훈련 성격이 짙다. 세계선수권 준비는 더딘 편이다. 볼트는 지난 4월 절친한 동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 저메인 메이슨(영국)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볼트는 "충격이 너무 커서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볼트는 경쟁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다. 볼트는 "6월 안에 100m 9초대 기록만 세우면 8월에는 9초7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볼트는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총 11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2009년 베를린, 2013년 모스크바, 2015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했고 2011년 대구에서는 100m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해 200m와 400m 계주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런던 대회에서 볼트는 2개의 금메달을 노린다. 그는 "지금까지는 200m에 출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